

처음엔 막연한 꿈이었습니다.

좋은 무언가를 만들고싶다는 생각과

이걸 꼭 해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만나

아주 보통의 꿈은 그렇게

내안에서 가장 크게 자라고 있었습니다.

자신은 있었지만

어딘가 불안했던 마음.

‘내 제품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?’

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,

조언을 구할 누군가도 없었던 그때

혼자가 아니였기에

시작할 수 있었습니다.

그저 상상에 불과했던

내 아이디어가

수많은 손길과 조언 속에서

점점 현실과 가까워져 갔습니다.

꿈은 그렇게 가능성이 되었고,

가능성은 다시

현실이 되었습니다.

불확실함 속에서도

멈출 수 없었던 도전,

이제 나는

나의 꿈을 안고

더 넓은 세상을 향해

나아갑니다.

혼자였다면

끝까지 걸어올 수 없었을 길,

함께 걸어준 그들이 있기에

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.

오늘도 누군가의 하루에

달아있는 나의 꿈 .

앞으로 더 많은 날에

함께 하길 바라며,

나는 다시

한 걸음을 내딛습니다

내 꿈이 머무는

또 하나의 이름,

국가식품클러스터.